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엡2:4)

◎ 생활지침 ◎

- 1.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교사들의 연합과 연구의 장(場) 펼쳐

오늘 II부 예배 후 교사대학 강좌 ② 교사들의 재교육과 영적인 충전 위해

지난 달에 시작한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대학의 그 두번째 강좌가 오늘 실시된다. II부 예배 후인 오전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진행될 오늘의 강좌의 제목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육원리"로 강사는 고용수 교수(장신대)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교회학교 교사 전원의 참석을 요망하고 있으며 교회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장년부 교사 및 학생이 그리고 교사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참석을 환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원하는 성도는 소정의 수강신청을 거쳐 등록하면 된다.

교사대학의 강좌는 여름성경 학교와 수련회가 있는 7·8월을 제외하고 매월 마지막 주일에 진행된다. 규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면 수료증이 수여되고 차년도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받을 수 있다.

교사대학 참가 문의는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정호 장로, 지도

▼ 1997년 교사대학 강좌 내용 및 강사

실시일	강좌	강사
1월 26일	서울교회의 교육방향	박귀환 목사(서울교회)
2월 23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육원리	고용수 교수(장신대)
3월 30일	교사 지도력 개발	장종철 교수(감신대)
4월 27일	교수 학습 방법론	박원호 교수(장신대)
5월 25일	효과적인 반 운영	홍정근 목사(장신대)
6월 29일	교회학교 부흥의 실제	주선에 교수(장신대)
9월 28일	교회학교 교육과 학생 이해	사미자 교수(장신대)
10월 26일	공과준비 실제	임창복 교수(장신대)
11월 23일	신세대 문화와 교육심리	정소영 교수(서울신대)
12월 28일	교사의 영성개발	오성준 교수(장신대)

박귀환 목사)로 하면 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 재교육으로 교회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강좌를 개설하였다. 아울러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천국일꾼 양성을 위한 우리교회 교육목표를 함께 생각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연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사순절에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삶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항상 같이 언급하셨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눅 9:22 - 25)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한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려면 먼저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삶과 그리스도를 섬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올해의 첫 학습·세례식이 지난 19일(수) I·II부 예배시간에 거행됐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성도들은 세례받는 이들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받기를 기도하였다. 이미 세례받은 성도들은 세례받던 때의 결심과 신앙을 다시금 떠올리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숙한 신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 우리는 창조질서의 청지기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시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사회 각계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요청되고 있다.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은 서울만해도 전체 생활쓰레기의 약 35%정도인 4,400톤에 달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7조원에 달하며 부피도 8톤트럭 550대분에 해당한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물기

가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악취, 침출수 배출 등 각종 환경오염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부 쓰레기매립장에서 젖은 쓰레기 반입을 실력으로 저지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려면 우선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버려지는 음식물도 물

기를 잘 짜서 분량을 줄인 후 규격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모임을 통해 음식물을 나누며 성도간 교제를 나누는 기회가 많은 교회의 입장에서는 보다 지혜롭게 남은 음식물을 처리해야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강해

“살아있는 교회”

(창세기 48장 1 - 22절)

이중윤 목사

야곱은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 그의 생애를 마지막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마치 경주장에서 다른 선수를 능가한 경주자처럼 상을 타기 위해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는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마지막 인내의 순간입니다.

야곱은 압복강가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긴 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후손을 일컫는 말이 되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선민의 대명사이기도 하며, 신약시대에 와서는 선택받은 백성의 무리, 즉 교회를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지상 교회의 운명과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임종하기 직전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살아있는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히11:21)라고 묘사했습니다.

1. 살아있는 교회는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야곱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벤엘 뜰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것, 잃었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까지 보게 하신 것,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야곱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여러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시작부터 끝까지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정으로 만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야곱은 눈을 감기 전,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후손에게 남겨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신앙 유산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살아있는 교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뒤돌아 보는 야곱의 마음에는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무엇 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복을 헤아려 보며 감사합니다. 그의 생애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큰 슬픔의 때에도 형언할 수 없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마음 속에서 넘치는 감사를 그의 아들과 손자에게 증거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사명을 가졌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크고 위대함에 대해 감사가 넘칠 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슬픈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3. 살아있는 교회는 책임을 다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몸의 모든 기운이 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사는 날 동안 능력을 다해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무릎 사이에 앉히고 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손을 머리에 얹는 것은 극진한 사랑의 표시로서 야곱은 죽기 전에 사랑의 책임을 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불행을 느끼고 있는 작금의 우리 민족을 향해 부지런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손자를 내 것 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 땅에서 자란 요셉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 족장들의 신앙을 계대하려는 야곱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민족을 향한 축복의 기관이 되어야 하고, 권면의 기관이 되어야 하며, 백

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향도적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도 그의 생애 동안 여러 번 그 존영을 상실하여 다시금 야곱의 위치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그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함으로써 그 이름에 걸맞는 참된 능력을 지닌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 옛날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천국을 증거하며 책임을 다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순례자 컬럼 ✦

“바울의 고백”

우리 인간은 자칫 조그마한 수고를 한 것 가지고도 마치 큰 일을 해낸 것처럼 떠벌리는가 하면 남의 수고를 제가 한 양 가로채어 영광을 얻으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바울도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노라고 솔직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해서 것처럼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 선전이나 과장으로 말하려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깨달아 시인하고 있었으며 주를 위하여 수고할 마음이 생긴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수고를 참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나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음도 자기의 탁월한 역량이나 인내심과 도량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거듭 고백하고 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수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노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자.

▶ 독자가 독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네 모습 그리며”

○...다음은 95년 8월까지 서울교회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우육자 집사의 글이다. 우 집사는 친구인 이영서·김옥자 집사의 아들 이승헌 군에게 순례자를 통하여 사랑의 편지를 보내왔다. 이승헌 군이 그동안 우 집사의 아들들에게 늘 믿음의 글, 사랑의 글을 보내곤 한데 대해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답장하고 아울러 서울교회 온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순례자를 통해 이 글을 보낸다고 밝혔다....

승헌에게

이곳에서 네 합격소식을 듣고 기철이는 “엄마! 나하고 물총싸움하던 형이 합격이 되었어!”라고 외쳤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세식구는 주님께 감사예배를 드렸단다. 네가 합격한 것만으로 감사하였던 것은 아니란다. 네가 하나님을 향한 몸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서울교회 고등부에서 네가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였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 믿으며 더욱 더 감사하였지.

승헌아!

홍해작전 새벽예배, 대예배, 저녁예배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세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사모했던 네 모습.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살다왔는데도 해마다 혼자라도 삼척에서 열린 가족수련회에 참석하여 기뻐하던 네 모습.

더더구나 온 식구가 제주도 할머니댁에 가면 너 혼자라도 먼저 토요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와서 주일을 온전히 교회에서 산다는 소식을 듣고는 또한 번 감동해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단다.

“주님! 제가 보기에든 아름다운데 주님은 얼마나 기쁘신가

요?”

승헌아!

대학가서도 네게 주셨던 전도 부장의 사명 잘 감당하여 생명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너의 삶이 되길 바라며 너의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련다.

승헌아!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글과 아울러 교회의 소식이 이곳까지 전해지곤 하는데... 그중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더 넓고 큰 성전으로 이사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곳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달라는 네 글귀에서 가슴이 뭉클해졌단다. 하여 나 비록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나 쉬지않고 기도하고 있단다.

서울교회 예배실황 테이프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로, 매사추세츠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부족하여 답장 한 번 못하기에 내가 대신 순례자를 통하여 너와 서울교회 온 식구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썼다. 항상 정성껏 예배드리는 네 모습을 그리면서...

뉴욕에서 우 집사가

故 손호선 군을 추모하면서

새로 깨달은 ‘사랑’의 의미로

노애리(대학부)

수련회 시작 며칠 앞두고 접한

네 갑작스런 죽음의 소식에 뭐라 말할 수가 없었다.

평소 끊이지 않고 기도제목을 나누며

신앙에 도움을 받았던 너희 누나 영희.

사랑하는 동생을 잃은 네 누이의 충격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려고 나는 되도록 영안실에 머물렀다.

잠도 부족하고 몸도 몹시 피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찬양의 나의 것이었으며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주시는 것이었음을...

가장 큰 은혜였다.

지체 하나를 잃었으나

내 맘 속에는 아픔을 이길 감사가 있었다.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그 큰 사랑을 다시금 느낀 것이 은혜였고,

항상 ‘사랑많은 자’ 되기를 소망하던 내게

‘사랑’의 의미는 수정될 수 있었다.

우리의 악함을 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려고

이번에도 젊다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널 데려가셨을까

다시는 실수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사랑의 문제로 소중한 지체를 놓쳐버리고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이 결정키 힘든 일을 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호선아, 사랑한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네 가족들의 모습에

내 자야를 다시 깨뜨리면서

그 큰 사랑을 다시,

이렇게 수정된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생활 속의 단상

우리는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김예환(권사, 중등부 교사)



얼마 전 어느 모임에서 한 교인을 만나 신앙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되었다. 그분은 모태신앙이라고 자랑도 하였지만 대화를 하

다보니 내가 보기엔 아직도 그는 ‘종교인’이었다. 생활을 하보면 여러 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다. 물론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주신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와 이해의 범위를 초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창조하신 우주의 조화로움도 엄청난 일인데 그보다 더욱 큰 사랑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음과 감

격으로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복음은 종교적인 노력 즉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것이다. 종교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보다 형식, 율법, 규칙, 제도적 행위로 종교 의식을 갖는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대신에 자신의 힘으로

4면에 계속➔

◀3면에서 계속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자신들의 팔이 닿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한정시켜 놓으려 하고 있다.

종교적인 가치와 경건한 척 하는 것을 벗어나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의 문제이며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장과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거기에는 안위와 휴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면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인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우리가 만들어 낸 하나님을 알맞은 크기로 잘라서 다루기 쉬운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영과 육, 전제로 산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행복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우리는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중등부 학생들에게 십자가 사건, 부활, 재림을 여러가지 카드를 제시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게 해 주는 게 나의 사명이다.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 중등부에 많은 씨를 뿌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싶은 소망이다.

■ 목회자·교우 동정 ■

- * 이종운 목사는 25일(화) 숭실대에서 주최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에서 "교회성장을 위한 교회론"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한다. 또한 27일에는 기독교 교도관 사망자 세미나에서 "미래의 교도소 선교"라는 제하의 강연을 한다.
- * 김미숙 집사(3교구 도곡주공다락방)는 21일(금) 대치동에 '하나문방구'를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길동무

주 위 세계와 자신을 조화시키지 못하는 데서 종종 마음에 혼란과 고통이 초래된다. 아마도 천지창조 기사가 실린 성경과 아울러 진화론적 입장에서 인류의 기원을 서술한 교과서를 보는 학생이 그럴 것이다. 전통적이라는 가풍을 지닌 집으로 시집간 며느리가 제사때 느끼는 심정도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한때는 민족의 시조를 기념한다는 이유로 단군성전문제가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최근 대전에서는 국축제를 개최하는 문제로 또 시끌벅적한 모양이다. 국축제 주최측에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리 교유의 전통을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 수역원을 지원받아 행사를 열려는데 대해 현지 기독교계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이 행사가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 사건이 기독교 신앙과 민족 전통과의 괴리에서 출발하는 문제처럼 보인다. 어느 가톨릭대학의 한 교수는 기독교가 무속신앙이 가진 신바람과 즉흥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또 어떤 이는 기독교는 서구의 문화침략의 도구일 뿐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기독교가 외래 종교이고 우리의 전통과는 동떨어진 문화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도 당시 예언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각종 미신을 믿는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마찰을 빚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흔히 우리가 기독교문화의 본거지라고 말하는 서구 지역에서도 각종 미신은 여전히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가? 한 기독교출판사가 서울 경기 대전지역의 평신도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28.4%가 점술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실제로 점을 보았

다는 사람도 13.6%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컴퓨터를 즐겨 다루는 사람들의 경우 컴퓨터사주를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다. 목사님을 청하는 상황도 무당을 청하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이런 우상이 '경제 지상주의'라는 탈을 쓰고 나타나는 데 있다. 국축제를 열려는 사람들은 "좋은 관광상

품"임을 강조하고 국가 경계를 살린다고 한 작은 평화로운 가정을 파괴할 지도 모를 법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관광사업이 잘 되고 자기 사업이 번창하며 국가경쟁력이 몇 % 성장토록 바라는 것이 한편 좋은 일인지 모르나 보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새로운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요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무리 엄청난 세상의 영화를 얻은들 한점 하나님의 영광에 비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곳과 경제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2월 새가족 환영회

* 2월의 새가족 *

김지은 서명수 윤원빈 김중우 이의하
김춘기 김공순 이성민 김성기 홍성근
김숙행 박영철 김은주 양경근 이옥희
김익형 이광웅 이성열 이영희 신용달
신정자 신난섭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충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신청 접수 ■

- 제 11학기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1997년 2월 10일(월) ~ 3월 24일(월)
- 제출서류 / 본원 소정양식
- 등록금 / 한 학기(10주)에 만원
- 신청서 접수 및 수강 안내 /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서초구 반포동 737-3 ☎ 517-7651 ~ 5 FAX. 512-1225)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순절 기간동안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 교회학교의 겨울성경학교·수련회를 위해
3. 새가족의 신앙성숙과 교회생활 적응을 위해
4.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